

‘5·18 정신’ 끝내 저버린 국힘...헌법 전문수록 ‘무산’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의결정족수 191명 못 채워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추진...‘12표’ 필요 정치권·시민사회 등 “시대적 과제 외면” 비판 확산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1〉정치적 벽 앞에 멈춰선 ‘오월정신’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완전한 국가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 역시 이번이 정치권의 벽 앞에서 좌절됐다. 역사 왜곡과 폄해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발포 명령과 규명, 국가 책임 문제 또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본보는 연속기획을 통해 헌법 전문 수록 논란과 왜곡의 현실, 미완의 진상규명 문제를 차례로 짚어본다. ▶관련기사 2·9·10면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개헌 논의가 제1야당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다.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오른 것은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발의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개헌안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우지 못했고, 결국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만으로는 정족수 확보가 불가능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 표가 필요했지만 실제 투표에는 178명만 참여했다.

헌법상 같은 회기 내 재표결은 가능하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국회의 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번 개헌안이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헌법에 새기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무



국립5·18민주묘지 찾은 추모객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7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묘역을 둘러보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전문수록 등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표결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지만 헌법은 4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1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정신을 통해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하는 헌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역시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와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시민추진위원회, 시민추진위원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개헌안 처리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됐다. 5·18기념재단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에 달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개헌안이 국회에서 끝내 의결되지 못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5·18 공법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평가하겠다”고 비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행사 ‘풍성’

문화·예술로 오월정신 계승...기념식은 18일 민주광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한 달 간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7일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의 슬로건은 ‘오월의 꽃, 오늘의 빛’으로, 5·18 정신을 재확인하고 계승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된다.

이날 시작된 ‘오월미술행’은 ‘파시즘에 대항하는 여성’을 주제로 5·18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증언과 돌봄, 상호의존 윤리를 바탕으로 한 여성 운동을 예술의 언어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 브리태니컬, 무등갤러리, 시립미술관 등에서 운영된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5·18역사공원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메이데이(MAY: DAY)’에서는 ‘함께 만드는 평화(Peace Log)’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만날 수 있다.

16일부터 17일까지는 광주 곳곳이 1980년 5월로 바뀐다.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난장과 구형 버스를 당시 버스로 도색해 5·18 사적지를 살펴보는 ‘오월 민주버스’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16일 오후에 열리는 ‘민주의 밤’ 행사는 기존 전야제를 계승·발전하면서 대중적인 공연 중심으로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축제 형식의 행사가 개최된다.

5·18 기념행사의 백미인 전야제는 마당극과 노래공연, 다양한 계층의 발연 등 국민대회 성격을 담아 인권·기후·반전 평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정부기념식은 18일 5·18 최후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정부기념식이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원형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 상정성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립5·18민주묘지가 아닌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이날 말까지 ‘5·18 영화상영회’를 개최한다. 매일 5·18 관련 영화 5편을 연속 상영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전남, 방산클러스터 도전장...‘반도체·우주’ 투트랙

광주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미래 먹거리로 첨단 방위산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정부가 국방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 신규 선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는 인공지능(AI)·광융합 기반 국방방산도체를, 전남은 고효율 우주항공과 순천 소재부품을 결합한 우주방산 분야를 축으로 공모 경쟁에 뛰어들었다. ▶관련기사 2·9면

광주, 시·광융합 국방 방산도체...전남, 고효율·순천 우주방산 시·도, 공모 앞두고 조례 제정·산업 육성 방향 등 구체화

7일 광주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전담기관으로 참여하며, 1차 지역평가위원회 제안

서 평가와 2차 방산청 지역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가 결정된다. 이번 공모에는 광주와 전남을 포함해 전국 8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다. 부산은 해양 AX, 인천은 항공·무인기, 경기도는 지상무기체계, 강원은 반도체, 충남

은 국방로봇, 전북은 첨단소재 분야를 각각 내세우며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4개 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AI와 광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무기체계와 감시·정찰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 방산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면으로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초대석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사법부 신뢰할 때까지 개혁 끈 놓지 않겠다”

회제의 인물



이동원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회장
지방은 왜 불리한가 전남대 학생의 도전

전남농업이야기



최진실
전남도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연구사
“유류 신종종 육성으로 국산화 앞당기겠다”

남도 예술인



이관우 기타리스트
“기타 선율로 내 이야기 연주하는 뮤지션 되고 싶다”

2026.05 vol. 156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인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커버스토리

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의병정신 현재로 있는 살아있는 역사공간”

진시·교육·체험 아우르는 대표 의병 전문 박물관 지향 시프로그램 확대...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거점